

기말고사 영어  
완전 정복 2  
단어 암기

교과서로 시작해 어원 활용 교재까지

# 영알못 탈출하는 영단어 학습법

영어 공부의 기본은 단어 암기다. '영알못(영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)'부터 영어 고수까지, 실력 차이는 있더라도 단어를 외워야 하는 건 똑같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좋을까? 또 영단어 교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? 영어 실력에 날개를 달 수 있는 영단어 학습법에 대해 전문가의 비법을 들어봤다.

취재 송은경 리포터 eksong@naeil.com  
도움말 이정우 교사(인천 안남중학교) · 니콜 강사(씨앤씨학원 목동 특목관)

**step 01** 교과서로 시작하는 영단어 학습

영어 초급자, 소위 영알못이라면 교과서에 나온 어휘부터 챙겨보자. 시험과 직결된 교과서 속 어휘들을 먼저 공부하면 내신 성적이 올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. 이는 자연스럽게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고 더 많은 양의 학습을 유도해 보다 높은 성적 향상을 이끌어내는 선순환을 만든다. 인천 안남중 이정우 교사는 “영단어 학습에서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자신이 외운 단어가 언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막막함인데, 교과서 어휘를 암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해 학습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”고 설명한다.

**step 02** 영어 고수로 가는 영단어 학습법

교과서 어휘를 마스터했다면 다음은 영단어 교재다. 학습 방법이나 효율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, 흥미 위주로 편집된 교재는 피하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. 이 교사는 “영단어 교재는 20~30개 정도의 하루 학습량에서 모르는 단어가 70% 정도면 적당하다. 기초가 부족하다면 일반적인 교재를, 일정 수준의 어휘력을 갖췄다면 어원을 활용한 교재를 선택하길 추천한다. 어원을 통한 학습법은 초기에 어원을 추가로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보다 많은 단어를 더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”고 강조한다. 씨앤씨학원 니콜 강사도 “어원을 이용해 암기에 이해를 더하는 방식으로 단어를 공부하니 50개의 단어를 암기하는 것도 힘들어했던 학생들이 100개가 넘는 단어도 힘들이지 않고 외운다. 본격적인 학습 영어를 시작했다면 어원으로 정리된 교재를 한 권 끝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. 입문은 <능력보카 어원 편>과 심화는 <어휘끝5.0> 교재를 추천한다”고 전한다.

## 정우 쌤의 교과서 단어 공부 TIP

“교과서를 활용해 미리 단어를 공부하고 싶다면, 교과서의 지문과 문법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읽으며 모르는 단어를 확인한 후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. 단, 내신 시험 대비에는 시간이 꽤 걸려요. 이땐 교과서와 같은 출판사의 평가 문제집이나 '이그잰포유'와 같은 자료 제공 사이트를 활용해보세요.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단어들을 모아서 제공하고 있어, 시험에 출제되는 어휘들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. 사실 많은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어떻게 암기해야 하는지 묻는데, 안타깝게도 그 방법은 스스로 찾아내야 해요. 여러 가지 암기법이 있지만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직접 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. 독한 마음으로 3개월만 단어 공부에 몰입해보면 좋겠습니 다.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단어 학습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.”

## 니콜 쌤의 영단어 공부 TIP

“영단어 실력을 더 쌓고 싶다면 동의어와 반의어 까지 어휘를 확장하고, 다의어도 따로 정리해 문장 속에서 그 단어의 쓰임을 익히는 것이 좋아요. 또 진정한 영어 고수를 꿈꾼다면 문장 속에 녹아 있는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원서 읽기에 도전해보세요.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중학생 때 단어 암기와 원서 읽기를 통해 심화된 학습을 해두면 고등학교 과정이 훨씬 수월할 거예요. 영어 원서는 재미 위주의 소설을 다독하는 것도 좋고, <JUSTICE> 처럼 정치학과 철학을 넘나드는 학구적인 원서를 골라 심도 있게 읽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.” @